

가족적응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Adolescent-perceived Family adaptability on Adolescent adjustment

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전 귀 연
교 수 최 보 가

Dept. of Home Management, Kyungpook National Univ.

Full-time Instructor : Jeon, Gwee-Yeon

Professor : Choi, Bo-Ga

〈목 차〉

- | | |
|----------------|------------------------|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의 고찰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adolescent-perceived family adaptability on adolescent adjustment. The 443 subjects were selected randomly from the second grade of middle and high schools in the city of Taegu. The instruments of measurement were FACES II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Depression Scale, and Self-Esteem Scale. Factor analysis, Cronbach's α , MANOVA, and Scheffé test were conducted for the data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There were differences in adolescents' adjustment by their perception of family adaptability levels. Namely, adolescents who perceived family adaptability to be low level- i.e. rigid family- felt anxiety and depression more, and adolescents who perceived family adaptability to be higher level- i. e. very flexible family- had higher self-esteem than other levels of adaptability.

I. 서 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족집단의 일원이 되어 살아간다. 사회구성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있지만(Murdock, 1949 ; Leve-Strauss, 1956 ; Kantor & Lehr, 1976 ; Gough, 1977) 그 중에서 가족을 하나의 사회체계, 또는 기능적인 단위로 보는 입장은 Bertalanffy(1968)의 일반체계이론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족체계는 하위체계들 간에 매우 높은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으며 (Aldous, 1978) 또한 하나의 개방체계로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 기계적인 폐쇄체계는 외부의 조직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외부의 조직이 끼어들면 무너지는 데에 반해 인간체계는 물리적, 정신적으로 자신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다른 사람, 다른 사고 그리고 사회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 특히 사회체계로서의 가족은 그 체계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외부의 다른 체계와도 끊임없이 상호교류하는데 이것은 가족의 안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결한 과정이다. 이러한 가족체계는 조직을 이루어 일종의 균형 또는 항상성(homeostasis)을 추구하게 된다. 항상성이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하려는 체계의 경향, 그리고 이러한 균형이 깨어질 위협을 느낄 때 이를 회복하려는 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족체계는 항상 어느 정도 변화하면서 체계를 스스로 유지하는 적응성을 지니며 또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체계들, 그리고 외부체계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역동적이다. 따라서 가족체계이론가들은 가족의 역동적 특성을 설명하고 진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다(Broderick & Smith, 1979 ; Kantor & Lehr, 1976 ; Olson, Sprenkle, & Russell, 1979 ; 1983 ; Olson, 1993 ; Beavers, Hampson, & Hulgus, 1990).

Broderick과 Smith(1979)는 가족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두가지 중요한 요소는 경계의 정의와 변형규칙이라고 했으며 Kantor와 Lehr(1976)는 체계관점을 토대로 가족 연구자들이 조사해야 하는 두 가지 중

요한 주제는 가족의 영역의미와 조직화라고 하였는데 이들이 사용한 용어는 서로 다를지라도 그 뜻하는 바는 거의 유사하다. 즉, 두 주장 모두 1) 가족이 스스로를 함께 연결시키는 정도 즉 분리 대 단결을 고무시키는 정도와 외부환경에 개방적인지 그렇지 못한지의 정도, 2) 내적·외적 요구나 목표에 따라 역할, 규칙, 전략을 변화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와 관련된 개념이다. 이 개념들은 다양한 용어로 기술되지만, Olson 등(1983)은 첫번째 개념을 가족응집성(family cohesion)으로, 두번째 개념을 가족적응성(family adaptability)이라는 용어로 발전시켰다. 그 중 가족적응성은 가족내의 조직적인 권력 차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족체계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가족원의 적응(adjustment)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체계이론과 가족발달이론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한 Hill(1971)의 주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는 생활주기의 각 단계는 독특한 일련의 과업을 가지므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의 가장 바람직한 수준은 각 단계의 독특한 과업에 따라 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또한 Haley(1973)는 가족원의 불안, 우울, 정신분열증, 비행과 같은 증상은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야 할 가족의 생활주기에 혼란 또는 방해가 올 때 일어나는 것으로 이것은 가족들이 생활주기의 각 단계에 필요한 과업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가족구성원의 적응에 가장 바람직한 가족적응성의 수준은 가족의 발달단계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가족원의 적응과 부적응을 조사할 때 가족의 발달단계를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가족발달단계를 구분하는 방법은 학자마다 다르지만(Howells, 1975 ; Duvall, 1977) 그 중 '자녀청소년기'는 일반적으로 가족구성원 중 최소한 한명이 청소년기에 있는 발달단계이다. 청소년기는 흔히 '심리적 각동기'라고 일컬어지는데,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영·유아기를 제외하고 신체발달이나 인지·정서발달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청소년기만큼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는 없을 것이다. 또한 가정이나 사회

에서 기대하는 역할에 있어서도 청소년기는 부모에게 돌봄을 받고 의존하는 어린아이의 위치에서 벗어나 독립된 존재로 한 몫을 하는 성인의 위치로 전환되는 시기가 된다. 이와 같이 중요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변화가 큰 폭으로 한꺼번에 일어나게 됨에 따라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변화들에 적응하는 능력이 크게 요구되며,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높아지게 된다(오경자, 1993).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정서적 불안정이나 비행 등 적응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기자녀를 둔 가족은 가족생활주기의 다른 단계와 마찬가지로 가족이 적응하고 수행해야 할 독특한 발달과업을 가진다. 많은 연구자들은 청소년기자녀와 관련된 가족의 중요한 과업은 청소년기자녀에게 더 큰 자율성과 독립성을 촉진시키는 것이며(Douvan & Adelson, 1966; Duvall, 1977; Adams, 1980), 부모자녀간의 세대차에 따른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Howells, 1975)이라고 했다.

한편,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가족적응성과 청소년의 적응문제를 다룬 것은 많으나(Jurich & Jurich, 1975; Balswick & Macrides, 1975; Hunt, 1974; Baumrind, 1971; Minuchin, 1974; Olson 등, 1983; Beavers & Voeller, 1983)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기자녀의 적응에 가장 바람직한 적응성의 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적응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가족적응성 수준(경직집단, 구조적인 집단, 융통적인 집단, 매우 융통적인 집단)에 따라 청소년의 적응도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가족적응성

가족체계의 안정과 변화를 설명하는 유효한 개념들을 마련해 준 Bertalanffy(1968)의 이론을 가족을 비롯한 사회문화적 체계를 분석하는데 적용한 Buckley(1967)는 모든 체계는 안정지향적(morphostatic) 속성과 변화지향적(morphogenic)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했다. 가족치료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이론가들은 항상성(homeostasis)을 중심원리로 삼아 가족의 변화지향적 속성보다는 안정지향적 속성 또는 기능을 강조하는 경향이 많았다(Haley, 1962; Jackson, 1957, 1965; Satir, 1964). 그러나 궁극적으로 항상성이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상을 유지하는 원리가 아니라 불안정을 조정하거나 체계내에서 변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Ackerman, 1958; Speer, 1970).

Ackerman(1958, 1966)은 항상성이란 이전의 균형이나 기능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작용한다기보다 주어진 체계내에서의 변화와 성장을 허용하는 원리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상태로 머무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고 했으며, 항상성유지란 가족체계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융통성과 안정성이 적절히 보장될 때 가족은 자녀의 건전한 자기감,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분위기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Speer(1970)는 체계의 존속을 위해서 가족은 내적 요소들 간의 관계, 지배적인 가치, 구조 등을 변화시켜 나가는 변화지향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Wertheim(1973)은 적절한 수준의 안정지향적 기능이 없다면 가족체계는 결속되고 생동감 있는 사회단위로서 살아 남을 수 없으며, 계속적인 변화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극단적인 변화지향적 기능은 집단의 생존과 대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동의미, 가치, 기대마저 가질 수 없게 하므로 안정지향과정과 변화지향과정은 가족체계의 활력과 균형을 위해 모두 필요한 조건이라고 했다.

Kathleen과 Brommel(1986) 역시, 모든 인간체계는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지향과정과 변화지향 과정을 모두 가지며 이러한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안정과 변화의 시기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정기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가족은 혼란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가족은 예측할 수 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공통의 의미를 형성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를 갖지 못하며 이와 정반대의 경우는 변화와 성장을 억제하는 경직성이라고 했다.

Kantor와 Lehr(1976)는 가족적응성이란 가족이 확립하는 상호작용유형이나 규칙 뿐만 아니라 확립된 유형이나 규칙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했다. 즉, 가족적응성의 개념은 내적·외적 요구나 목표에 맞추어 역할, 규칙, 전략을 바꾸려는 가족의 능력이나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적응성 연속체의 한쪽 끝에는 엄격하고 통제적인 것이 특징인 가족이 있고 다른 쪽 끝에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것이 특징인 가족이 있다고 하였다.

Olson 등(1979, 1983)에 의하면, 가족적응성은 '가족성원이 상호적 과정과, 발달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에서의 역할이나 규칙, 권력구조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것의 기본 가정은 적응성이 있는 체계는 변화와 안정성의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다는 데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 및 안정간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수록 가족은 서로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의사소통과 융통성 있는 민주적인 훈육방법 및 지도력을 나타내고 또한 문제해결을 위한 타협과 내적 균형을 잘 이루며, 각자의 역할 분담 및 수행이 확실하고, 분명한 규칙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Olson 등, 1979).

한편 Beavers 등(1965, 1986, 1990)은 체계란 개방성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Bertalanffy(1968)의 일반체계이론에 원리를 두고 가족적응성을 가족역량과 관련지었다. 그들은 가족체계의 역량 수준에 따라 각 가정을 연속선상에 배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엔트로피(entropy)'라는 체계 개념을 도입하여 가족체계를 설명했다. 엔트로피란 어떤 사물이 혼란과 무질

서의 상태로 빠져 들어가려는 경향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이다. 따라서 엔트로피가 낮은 가정일수록 질서가 정연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엔트로피가 높은 가정의 특징으로는 일관성없는 가정규칙을 따르려는 데서 오는 혼란, 권력구조의 변화, 왜곡된 커뮤니케이션등을 들 수 있다.

Beavers 등은 가족체계를 포함하여 모든 체계가 어느 정도의 혼란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엔트로피를 가지고 있으며, 폐쇄적인 가족체계일수록 엔트로피가 증대된다고 한다. 오직 개방적인 체계만이 자기 경계선 내에서 엔트로피가 낮으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전을 위해 필요한 체계 변화(높은 적응성)를 할 수 있는, 보다 조직화된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Beavers 등은 가족의 역량을 부정적 엔트로피의 연속체(negentropy continuum)로 표현하고 이러한 연속체의 한쪽 끝에 가장 융통성이 있고 적응성이 높으며 목표지향적인 체계를 두고, 그 반대쪽에는 가장 융통성이 없고 미분화되고 비효율적인 체계를 두었다. 그들은 이 연속선상에 가족기능의 수준에 따라 가족을 심한 역기능적 가족, 약간 역기능적 가족, 최상의 가족으로 나누었는데 심한 역기능적인 가족은 최상의 가족이나 적절한 기능을 하는 가족보다 어려움이 많아 일상적인 기능수행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며 심한 역기능적 가족의 자녀들은 대체로 환경에 대한 대처방법이 부족하고 심한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고, 약간 역기능적인 가족의 자녀들은 가정밖의 세계에서 기대에 잘 부응하지 못한다고 했다 (Beavers & Voeller, 1983).

2. 가족적응성과 청소년의 적응

가족적응성은 가족이 규칙과 패턴을 세워서 유지하고 가까이 변화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족상호작용의 몇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이것은 지도력, 권력, 훈육 혹은 가족이 가족발전단계와 같은 변화에 반응하는 융통성 대 엄격함의 정도와 같은 것을 포함한다.

가족적응성과 관계가 있는 부모의 지도력이나 혼

육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대개 허용적인 가족환경과 제한적인 가족환경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었다. 자유방임형(허용적), 민주적인형, 권위주의적이거나 전체적인 형(제한적)을 포함해서 지도력이나 훈육 유형의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 몇가지 용어가 제시되었다. Jurich과 Jurich(1975)는 자유방임형 부모를 자녀에게 그들 자신의 목표, 규칙, 제한점을 결정하도록 허락하는 부모로 기술하고, 많은 연구가 자유방임형 양육이 청소년 비행, 약물남용, 가출행동과 관계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리며, 규칙과 한계점을 결정하는 전권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 양육방식도 또한 청소년비행, 약물남용, 가출 청소년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다. Duncan(1971)역시 부모의 적절하지 못한 감독, 즉 너무 심하게 감독하거나 또는 무관심할 정도로 거의 감독을 하지 않을 경우가 청소년 비행과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Balswick과 Macrides(1975)는 부모가 극도로 제한적이거나 허용적일 때 자녀들은 더 많은 반항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대마초 흡연을 청소년 반항의 척도로 사용하여 Hunt(1974)는 민주적 부모는 낮은 수준의 대마초 흡연과, 부모의 제한(전제적)은 보통의 대마초 흡연과, 부모의 허용성은 높은 대마초 흡연과 관계있음을 발견했다. 이와 유사하게 몇몇 연구자들은 극도로 전체적인 훈육과 극도로 자유방임적인 훈육은 자녀들의 비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Glueck & Glueck, 1950; McCord, McCord, & Zola, 1959; Hetherington, 1971).

Baumrind(1971)는 허용적, 민주적, 전제적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그는 허용적이거나 민주적인 부모의 자녀는 전제적인 부모의 자녀보다 더 책임감이 강하고 성취욕이 강하다고 결론내렸다. Kandel과 Lassar(1969)는 청소년기자녀와 부모가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허용적이거나 전제적인 부모의 자녀보다 더 독립적인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만일 청소년기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하게 개발시킬 때라면, 민주적인 양육방식은 이 과정에서 가장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이 그들의 가족체계를 민주적인 방식(중간수준의 적응성)으로 운영해 나간

다고 지각할 때 그들 부모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될 것이며, 이것은 청소년의 태도, 인식, 행동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와 상응하게, Rollins와 Thomas(1975)는 양육연구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지도-훈육이 지나치게 허용적이거나 제한적인 유형이, 중간범위 즉 민주적인 유형보다 자녀에게 더 많은 정신적 증세나 문제행동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고 했다.

Westley와 Epstein(1969)은 가족적응성의 차원을 건강한 가족기능과 관련하여 고려했다. 가족의 문제해결, 권력, 권위, 역할, 자율성의 격려가 청소년기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그들은 부부관계의 질과 조화가 청소년기자녀의 정서적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머니-지배적인 가족과 아버지-지배적인 가족의 아동은 정서적 문제가 더 많고 장점이 적은 반면, 민주적인 가족의 아동은 문제가 더 적고 장점이 있다. 게다가 자율을 격려하는 가족의 청소년기자녀는 그것을 최소화하는 가족의 경우보다 정서적으로 더 건강했다. 또한 부모의 권위나 책임이 부모 양쪽에 있지 않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경우,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etherington, Stowwie, & Ridberg, 1971).

가족적응성의 차원과 관련지어서, Minuchin(1974)은 스트레스가 종종 가족내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야기시킨다고 진술한다. 이 스트레스의 근원은 자연재해와 같은 외적 요소나 가족발달단계와 같은 가족내의 내적 압력일 수도 있다. Minuchin은 모든 가족이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스트레스에 직면한 가족이 상호작용패턴과 경계를 엄격하게 하고, 어떠한 대안의 탐색도 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병리'라는 이름이 붙여진다"고 했다. 그래서 Minuchin에 따르면 더 건강한 가족은 스트레스에 더 적응적이고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반면, 병리적인 가족은 그러한 유형이 역기능을 일으킬 때조차 옛 유형을 유지한다. 이 원칙을 본 연구에 적용해 보면 적당히 적응적인 가족은 이 차원의 양극단에 있는 가족보다 청소년기자녀에 수반되는 과도기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연구로 민하영(1992)은 청소년 재소자와 남자중·고등학생 중 일반청소년의 비행보다 높은 수준의 비행정도를 보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비행정도와 가족적응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비행영역에서 적응성이 낮은 가족집단의 청소년이 중간이거나 높은 수준의 적응성을 보인 집단의 청소년보다 높은 비행정도를 보이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상의 연구들은 가족체계의 가족적응성과 관련된 몇가지지를 제시한다. 즉 첫째, 다양한 요소(즉, 훈육 지도력 스타일 : 변화에 대한 가족의 반응)가 가족적응성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가족 적응성은 문제가 있는 가족이나 가족관계와 문제가 없는 가족이나 가족관계를 구별하는 데 중요한 개념으로 고려된다. 셋째, 대부분의 연구는 가족적응성이 단편적이지 않은 가족이 문제를 가장 적게 경험하고, 청소년기 자녀가 더 큰 독립과 자율성을 획득하는 데 가장 촉진적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과거 연구가 부모의 훈육이나 지도력과 같은 개인적 차원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는 가족체계적인 관점에서 가족적응성의 개념을 확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가족적응성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이 활용되었다. 가족체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은 객관적인 정보보다 청소년의 적응정도를 평가하는 데 더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자들은 가족경험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가족경험의 객관적인 평가보다 자녀의 행동이나 태도에 더 큰 결정요인이라고 제안했으며(Giuli & Hudson, 1977; Aushell 등) McDonald(1977)는 청소년의 지각이 중요한 변인일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는 이러한 지각이 객관적인 측정과 꽤 일치하므로 청소년의 지각이 적절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정확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족응집성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이 청소년의 적응정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중·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구시를 7개구로 나눈 후 난수표를 사용하여 3개구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구를 대상으로 각 구별, 중·고등학교별로 남·여학교 1개교, 여학교 1개교씩 12개교를 무선표집했다. 각학교의 2학년 전학급을 대상으로 한학급씩 표집을 하여 선정된 44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가족적응성척도와 적응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불안척도, 우울척도, 자아존중감척도 및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1) 가족적응성척도

가족적응성의 평가는 Olson, Portner와 Lavee(1985)가 개발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척도Ⅲ(th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Evaluation Scales Ⅲ : FACESⅢ)를 연구목적에 맞게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FACESⅢ은 Circumplex Model의 두개의 주요한 차원(응집성과 적응성)을 평가하기 위해 Olso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척도로써 국내연구를 위한 FACESⅢ의 구성타당도 및 신뢰도는 전 귀연과 최보가(1993)에 의해 검증된 바 있다.

FACESⅢ 중 가족의 지도력, 통제, 훈육, 역할, 및 규칙에 대한 다섯가지 구체적인 영역에 대한 10개의 문항으로 평가되는 가족적응성 요인은 가족응집성 요인과 직교하며($r = .03$) 가족응집성과는 다른 가족기능영역을 측정하고 있다(Olson 등, 198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적응성만을 취하여 청소년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한편, FACESⅢ은 원래 Olson의 Circumplex Model에서 제시된 양방향성의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였으나 FACESⅢ을 사용한 경험적 연구들이 Circumplex Model의 곡선적인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Beavers & Voeller, 1983;

Green 등, 1985 ; Fristad, 1989 ; Perosa & Perosa, 1990). 즉 FACESⅢ의 Likert 5품등 척도의 문항들은 역기능-기능-역기능의 곡선적인 측정치가 되도록 의도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역기능-기능의 직선적인 측정치를 내기 쉽게 되어 있어 가족적응성이 지나치게 높아 역기능적인, 혼란가족을 FACESⅢ로는 구별해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Olson, McCubbin, Barnes, Larsen, Muxen, & Wilson(1992)은 FACESⅢ에 의한 집단분류방법과 명명방법을 새로이 제안하고 적응성 수준에 따라 경직집단, 구조적인 집단, 융통적인 집단, 매우 융통적인 집단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분류방법에 따르면 과거에 혼란된 집단으로 분류된 집단은 매우 융통적인 집단으로 분류되게 되므로 연구결과의 비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연구결과와 비교에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과 동시에 FACESⅢ에 의한 분류방법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2) 청소년의 적응성척도

(1) 불안척도

불안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Spielberger, Gorsuch, & Lushene(1970)이 개발한 상태-특성 불안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 STAI)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STAI는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으로 나뉘어지는데 각 2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을 나누어 중복된 내용을 배제하고 청소년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문항을 선별하여 각각 15문항씩으로 구성하였다.

(2) 우울척도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Faulstich, Carey, Ruggiero, Enyart & Gresham(1986)이 아동과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CES-DC(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for Children)와 Kovacs(1985)의 CDS(Children's Depression Scale)를 참고로 하여 25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3) 자아존중감척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개발한 자아존중감척도를 사

용하였다. 자아존중감척도는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물론 영역별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데 매우 간편하게 되어있다.

이상과 같은 척도들은 모두 Likert 5품등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에 대한 구성타당도 및 신뢰도는 전귀연과 최보가의 연구(1993, 1995)를 참조하길 바란다.

3. 절차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 문항 이해도,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질문지 작성상의 문제점과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1993년 4월19일부터 4월22일까지 중·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 내용을 수정·보완했으며 완성된 질문지를 대구시내 중·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500명을 무선표집하여 1993년 5월3일부터 5월7일 사이에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489부였고 이 중에서 응답이 누락된 자료,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정한 거짓척도 문항간의 응답이 일치하지 않는 자료와 편부모 자녀 및 시설아의 자료를 제외한 443부를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했으며 각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분석 및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각 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여 Olson 등(1992)이 제시한 방법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다변인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 MANOVA)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간의 개별비교는 Scheffé의 사후검증법을 적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Olson 등(1992)이 제안한 방법으로 가족적응성 점수에 따라 네 집단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융통적인 집단과 구조적인 집단의 수가 많은 편이고, 매우 융통적인 집단과 경직집단의 수는 적은 편이다.

가족적응성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에 대해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적응성 수준별로 주효과($F=6.51,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종속변인별 단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속변인 중 불안,

우울,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에서 가족적응성 수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었으나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에서는 집단간 유의한 차가 없었다. 유의차가 있는 변인에 대해서 집단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변인 중 불안에서는 구조적인 집단과 융통적인 집단간, 융통적인 집단과 매우 융통적인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다른 집단간에는 $P<.01$ 과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직집단이 구조적인 집단, 융통적인 집단, 매우 융통적인 집단에 비해 높은 불안을 보였으며, 매우 융통적인 집단보다 구조적인 집단이 불안이 높았다.

(표 1) 가족적응성 수준별 점수범위 및 빈도

가족적응성 수준	경 직	구조적인	융통적인	매우 융통적인	전체(443명)
점수범위	10 - 21	22 - 27	28 - 34	35 - 50	평균 : 27.96
빈 도 (%)	56(12.6)	142(32.1)	191(43.1)	54(12.2)	표준편차 : 6.06

(표 2) 가족적응성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다변인변량분석 결과

Effect	Wilks	Approx.F	Hypoth,DF	Error DF	P
가족적응성	.77	6.51	18,00	1228,02	.00

(표 3) 가족적응성 수준별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단변인변량분석 결과

종속 변인	Hypoth,SS	Error SS	Hypoth,MS	Error MS	F	P
불안	8345.52	153732.77	2781.54	350.19	7.94	.00
우울	2675.97	117196.51	891.99	266.96	3.34	.02
총체적 자아존중감	472.24	8253.61	157.41	18.80	8.37	.00
사회적 자아존중감	1565.45	17586.84	521.82	40.06	13.03	.00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3485.45	20866.32	1161.82	47.53	24.44	.00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27.30	12584.57	9.10	28.67	.32	.81

〈표 4〉 가족적응성 수준별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종속 변인	집 단	(평 균)	구조적인	융통적인	매우 융통적인
불 안	경 직	(104.00)	3.03**	4.20**	4.06**
	구 조 적 인	(94.40)	-	1.13	2.19*
	융 통 적 인	(92.15)	-	-	1.61
	매우 융통적인	(87.80)	-	-	-
우 울	경 직	(71.98)	2.52*	2.26*	2.79**
	구 조 적 인	(65.42)	-	.55	1.09
	융 통 적 인	(66.39)	-	-	1.53
	매우 융통적인	(62.56)	-	-	-
총 체 적 자아존중감	경 직	(18.36)	.68	1.16	3.96**
	구 조 적 인	(18.85)	-	.64	4.67**
	융 통 적 인	(19.14)	-	-	4.44**
	매우 융통적인	(21.98)	-	-	-
사 회 적 자아존중감	경 직	(27.48)	.45	.82	4.21**
	구 조 적 인	(27.02)	-	1.89	6.34**
	융 통 적 인	(28.29)	-	-	5.20**
	매우 융통적인	(33.20)	-	-	-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경 직	(22.91)	3.06**	6.15**	7.05**
	구 조 적 인	(26.45)	-	3.81**	5.90**
	융 통 적 인	(29.26)	-	-	3.80**
	매우 융통적인	(33.07)	-	-	-

* P<.05 ** P<.01

우울에서는 경직집단과 다른 집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그밖의 집단간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즉 구조적인 집단, 융통적인 집단, 매우 융통적인 집단간에는 우울에 별 다른 차이가 없으나 경직집단만이 우울이 높았다.

총체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에서는 매우 융통적인 집단과 다른 집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그밖의 다른 집단간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경직집단, 구조적인 집단, 융통적인 집단간에는 총체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별 다른 차이가 없으나 매우 융통적인 집단만이 높은 총체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을 보였다.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에서는 모든 집단간에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직집단, 구조적인 집단, 융통적인 집단, 매우

융통적인 집단순으로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가족적응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족적응성 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불안, 우울,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었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적응성이 낮은 집단인 경직 집단의 청소년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불안과 우울감을 가장 많이 느꼈으며, 가족적응성이 높은, 매우 융통적인 집단의 청소년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

이것에서 살펴 본 결과는 가족적응성이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Minuchin, 1974 ; Beavers 등, 1990 ; 안양희, 1988)과 불안수준(박금희, 1986), 청소년 비행(민하영, 1992 ; Garbarino, Sebes, & Schellenbach, 1984), 약물사용(Barnes, 1984 ; Jessor, 1984), 부모

자녀관계(전귀연·최보가, 1993)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가족적응성이 낮은 가족은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적인 훈육방식을 유지하며,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보다는 일방적인 통제방식을 사용하고, 역할과 관계 규칙을 상황에 관계없이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가족원에게 요구하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신의 가족이 이러한 특징을 가진 것으로 지각한 청소년들이 다른 집단의 청소년에 비해 불안과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적응성이 낮은, 경직집단의 청소년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불안과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이 가족 외적 요소나 가족발달주기에 따라 당면할 수 있는 가족내의 내적 요소에 의해 변화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 상호작용패턴과 경계를 엄격히 하고 어떠한 대안의 탐색도 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병리적 현상을 보이는 가족원이 있을 수 있으며(Minuchin, 1974), 변화에 융통성있게 대처하지 못하는 역기능적 가족의 자녀들이 심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한다는 Beavers 등(1990)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하영(1992)의 결과에서 지각한 바와 같이, 생활의 변화에 대한 가족의 낮은 적응성은 자신에 대해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하려고 하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변화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청소년기 자녀의 내적 불만을 가중시키고, 가중된 내적 불만은 청소년기의 적응문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가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부모의 청소년은 허용적이거나 전체적인 부모의 자녀들보다 더 독립적이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며(Kandel & Lassar, 1969), 부모들의 적합하지 않은 감독이 청소년의 비행과 관계가 있고(Hetherington, 1971), 권위주의적이고 적대적인 부모의 자녀들이 분노와 반항의 한 형태로 심한 약물을 사용할 위험이 훨씬 큰 반면(Jessor, 1984; Kovach & Glickman, 1986), 점진적으로 독립성을 발달시키는 민주적이고 수용적인 부모의 자녀들에게는 심각한 약물사용의 위험성이 일반적으로 적다

(Barnes, 1984)는 연구결과를 그것들이 적응성개념의 일부만을 다룬 연구이기 는 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적응성과 관계가 있는 부모의 지도력이나 훈육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Jurich과 Jurich(1975)는 규칙과 한계점을 설정하는 권위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 양육방식은 청소년비행이나 가출, 약물남용과 관계가 있다고 했다.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적인 부모들은 의사결정이나 지시에 대한 이유를 자녀들에게 설명할 의무를 느끼지 않으며 무조건적인 복종을 미덕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모들이 자지르는 한가지 실수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을 억누를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거할 수는 없다는 것에 있다. 지도와 훈육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유형의 부모들은 청소년기 자녀의 자게심을 조장하며, 민주적인 부모의 청소년들보다 자기 확신이 더 적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자녀들을 가지게 되며(Mussen, onger, Kagan, & Huston, 1990), 자녀에게 더 많은 정신적 문제나 문제행동을 야기시킨다고 한다(Rollins & Thomas, 1975). 반면에 민주적인 부모들은 자율적인 의지와 훈육행동, 두가지 모두에 가치를 두고 언어적인 의견 교환을 격려하며, 요구나 금지의 형태로 부모의 권위를 행사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Block, 1987; Cohler & Boxer, 1984; Lesser & Kandel, 1969), 이러한 부모들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신감, 자아존중감, 정서적 안정감, 책임감, 사회적 역량, 자율성, 진밀하고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의 발달을 촉진할 것 같다고 밝혔다(Bachman, 1970; Elder, 1980; Lesser & Kandel, 1969; Santrock, 1984). 이러한 연구들은 가족적응성이 낮은, 경직집단의 청소년이 다른 집단에 비해 불안과 우울을 가장 많이 느끼는 반면 가족적응성이 높은, 매우 융통적인 집단의 청소년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인 본 연구의 결과와 일부 일치하고 있다.

적응성이 높은 가족은 평등한 지도력과 민주적인 훈육방식을 유지하며 고정적이지 않고 융통적으로 상황에 맞게 역할과 규칙을 변화시키며 문제해결능력도 많다. 이러한 특징은 청소년기 자녀에게 자율성을 많이 부여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적

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적응성이 낮은 가족은 규칙, 역할, 지도력, 통제, 훈육에서 경직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 자녀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성취하는데 지장이 있으며 그것이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어 청소년의 불안, 우울을 가중시키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직가족집단의 청소년에 비해 다른 가족집단이 불안과 우울이 적다는 것은 적응성이 적절한 가족이 극단에 있는 가족보다 문제가 적으며 가족기능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들(Balswick & Macrides, 1975; Minuchin, 1974; Jurich & Jurich 1975)과 일부 일치된다. 적응성이 중간 수준 이상인 가족은 민주적인 통제와 훈육방식을 유지하며 가족끼리 협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 있으며 각자의 주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정에 대한 당지를 가짐과 동시에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유지한다(전귀연·최보가, 1993). 또한 적응성이 극단적이지 않은 가족은 자녀를 가족의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 청소년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하며 청소년의 독립성에 수반되는 역할, 규칙, 관계에서의 변화를 청소년기 자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기는 갑작스런 신체적 성장과 함께 정신적·사회적인 변화를 심하게 겪는 시기로 개인으로서의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하고 가족으로부터의 독립과 의존에 대한 상반되는 욕구로서 혼란상태가 되기 쉽고 갈등이 생기며 정서의 변화가 많아진다. 이러한 청소년의 발달과제가 가족관계에서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불안, 열등감, 우울, 긴장 등이 싹트게 되는 것이 청소년기의 발달 특징인데 이러한 청소년기동안 부모와 자녀는 서로 새로운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자녀가 청소년기에 도달할 때 가족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단계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지시, 통제 및 관련된 가족의 규칙을 무시하기도 하고 반발하기도 한다. 부모는 청소년기 자녀에게 더 이

상 절대적인 권위를 유지할 수 없지만 권위를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가 상호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많은 변화는 확립된 기존 관계체계를 변화시킨다. 따라서 어린 자녀를 가진 시기가 지나가고 자녀가 청소년기의 단계로 옮겨갈 때 부모가 자녀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적응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즉, 부모자녀관계에서 의사소통과 협상으로 성장과 변화에 적응한다면 이 단계의 문제도 해결되며 청소년기 자녀도 정서적, 사회적으로 장애없이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청소년들은 욕구와 감정을 가진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관해 의사결정을 하고 그러한 결정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 부모의 통제로부터 충분한 자유를 요구하므로(Conger, 1980; Steinberg & Hill, 1978; Youniss & Smollar, 1985), 부모들은 청소년들이 연령에 맞는 독립성을 더 많이 요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부모들이 계속해서 그 요구를 묵살할 때 청소년들은 폭발적으로 반항하거나 부적절한 정서적 장애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킨다.

실제로 만일 청소년기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하게 개발시킬 시기라면 민주적인 통제 및 훈육방식이 가장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가족체계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지각한다면 가족들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은 물론 나아가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를 통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권위 및 지위 등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지위 지향적 통제방식을 고수하느냐, 아니면 자녀의 심리적인 면이나 인지적인 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관계 지향적 통제방식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성격 및 정서 발달과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족적응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조사대상은 대

구시내 중·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 443명이었고 사용된 측정도구는 가족적응성 척도와 청소년의 적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불안척도, 우울척도, 자아존중감척도였다. 자료분석은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변인변량분석 및 Scheffé의 사후검증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족적응성 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적응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가족적응성 수준에서 경직된 가족의 청소년이 불안과 우울을 더 많이 느꼈으며 매우 융통적인 가족의 청소년들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의 지도력을 행사할 때 가족 중 어느 한 사람에게 권한이 고정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일처리 방법이나 책임 또는 규칙을 융통성있게 변화시키지 못하며, 훈육시 필요한 규율과 벌에 대하여,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때 자녀의 제안 및 견해를 개방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가족의 청소년들이 불안과 우울을 더 많이 느꼈다.

이것은 가족적응성이라는 가족체계의 차원이 청소년의 적응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인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청소년이 건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체계가 높은 적응성으로 기능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후속연구를 위하여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 정상가족만을 대상으로하고 이혼가족, 편부모가족, 입양가족, 임상가족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가족형태가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현 추세로 보아, 다양한 가족형태의 가족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비교연구를 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가족적응성에 대하여 가족내부인 중 청소년의 평가만을 활용하였으나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의 평가가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루어질 가족체계에 대한 연구는 가족의 특정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를 연구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또한 임상

의나 가족연구자와 같은 외부관찰자에 의한 관찰이 병행된다면 보다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가족구성원 중 청소년기자녀를 연구대상으로하여 가족적응성이 청소년기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가족적응성이 다른 가족구성원의 적응 및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가족구성원 중 최소한 한명이 청소년기에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횡단적인 연구를 하였으나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바람직한 가족적응성의 수준이 다르고 가족원의 생활만족도도 다를 수 있으므로 가족발달단계에 따라 종단적인 연구를 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적응성 척도는 외국에서 개발되어 적용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수의,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행하여 우리문화에 맞는 척도개발 및 기준설정이 우선적으로 요망된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김정택,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78.
- 2) 민하영·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13(1), 1992, 112-124.
- 3) 박금희·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화합도와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 청소년의 불안수준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6.
- 4) 선일선·생활사건변화와 불안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1.
- 5) 안양희·고등학교 남학생 가족의 기능적 특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서컴프랙스모형을 이용하여-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88.
- 6) 오경자·심리적 부적응 및 대처방안, 이준재 등, 정년 심리학(PP.299-37), 서울: 중앙정성 출판사, 1993.

- 7) 전귀연 · 최보가.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제유형이 부모 - 청소년기 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3), 1993, 157-173.
- 8) 최보가 · 전귀연.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Ⅰ). *대한가정학회지*, 31(2), 1993, 41-54.
- 9) Ackerman, N. *The Psychodynamics of Family Life*. New York : Basic Books, 1958.
- 10) Ackerman, N. *Treating the Troubled Family*. New York : Basic Books, 1966.
- 11) Adams, B. N. *The Family :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3rd Ed.). Chicago : Rand McNally, 1980.
- 12) Aldous, J. *Family Careers : Developmental Change in Families*. New York : John Wiley & Sons, 1978.
- 13) Ausbel, D. P., Balthazar, E.E., Rosenthal, I., Blackman, L.S., Schoont, S.H., & Welkowitz, J. Perceived parent attitudes as determinants of childrens' ego structure. *Child Development*, 25 (Sept), 1954, 173-184.
- 14) Bachman, J.G. *Youth in Transition*(Vol.2) : The Impact of Family Background and Intelligence on Tenth-grade Boys. Ann Arbor, MI :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1970.
- 15) Balswick, J.O. & Macrides, C. Parental stimulus for adolescent rebellion. *Adolescence*, 10(summer), 1975, 253-266.
- 16) Barnes, G.M. Adolescent alcohol abuse and other problem behaviors : Their relationships and common parental influences.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 13, 1984, 329-348.
- 17) Barnhill, L.R. Healthy family systems. *The Family Coordinator*, 28, 1979, 94-100.
- 18) Baumrind, D.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 4(1, pt.2), 1971.
- 19) Beavers, J., Hampson, R. B., Hulgus, Y. F., & Beavers, W. R. Coping in families with a retarded child. *Family Process*, 24, 1986, 398-405.
- 20) Beavers, W. R., Blumberg, S., Timken, K. R., & Weiner, M. D. Communication patterns of mothers of schizophrenics. *Family Process*, 4, 1965, 95-104.
- 21) Beavers, W. R., Hampson, R. B., & Hulgus, Y. F. *Bervers Systems Model : Observational and Self-report Scales Manual*. Dalls, TX : Southwest Family Institute, 1990.
- 22) Beavers, W. R. & Voeller, M. N.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Olson Circumplex Model with the Beavers Systems Model. *Family Process*, 22, 1983, 85-98.
- 23) Bertalanffy, L. von. *Geneal Systems Theory : Foundation, Development, Applications*. New York : Brazillier, 1968.
- 24) Block, J. H. Conception of sex role :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8, 1973, 512-516.
- 25) Broderick, C. & Smith, J. *The General Systems Approach to the Family* (pp. 112-129). In Burr, W. R., Hill, R. Nye, F.I., & Reiss I.L.(Eds.), *Contemporary Theoris About the Family*. Vol. II. New York : Free Press, 1979.
- 26) Buckley, W. *Sociology and Modern Systems Theory*. New Jersey : Prentice Hall, 1967.
- 27) Cohler, B.J. & Boxer, A.M. Settling into the World : Person, Time and Context in the Middle-adult. In D.Offer & M. Sabshin (Eds.), *Normal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 Basic Books, 1984.
- 28) Conger, J.J. A New Morality :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of Contemporary Adolescents. In P. H. Mussen, J.J Conger, & J. Kagan(Eds.), *Readings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 Contemporaty Perspectives*. New York : Harper & Row, 1980.
- 29) Douvan, E. & Adelson, J. *The Adolescent Experience*. New York : Wiley, 1966.
- 30) Duncan, P. Parental attitudes and interactions in

-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42, 1971, 1751-1766.
- 31) Duvall, E. M.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5th ed). Philadelphia : J. B. Lippincott Co, 1977.
- 32) Elder, G.H., Jr. *Family Structure and Socialization*, New York : Arno Press, 1980
- 33) Faulstich, M., Carey, M., Ruggiero, L., Enyart, P., & Gresham, F. Assessment of dep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 An evaluat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for Children (CES-DC).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3, 1986, 1024-1027.
- 34) Garbarino, J., Sebes, J., & Schellenbach, I. Families at risk for destructive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5, 1984, 174-183.
- 35) Giuli, C.A. & Hudson, W.W. Assessing parent-child relationship disorders in clinical practice : The child's point of view.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1 (Fall), 1977, 77-92.
- 36) Glueck, S. & Glueck, E.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 37) Gough, K. *Family Origins and Development*. In A.S. Skolnick & J. H. Skolnick, *Family in Transition*,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1977.
- 38) Haley, J. *Uncommon Therapy : The Psychiatric Techniques of H. Erickson*, M.D. New York : Norton, 1973.
- 39) Hetherington, E. M. The effects of familial variables on sex typing, on parent child similarities, and on imitation in children(pp. 82-107). In J.P. Hill (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Vol.I).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71.
- 40) Hetherington, E.M., Stowwie, R. J., & Ridberg, E.H. Patterns of family interaction and child-rearing attitudes related to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8, 1971, 160-176.
- 41) Hill, R. Modern systems theory and the family : A confrontation. *Social Science Information*, 10 (Oct), 1971, 7-26.
- 42) Howells, J.G. *Principles of Family Psychiatry*. Brunner/Mazel, Inc, 1975.
- 43) Hunt, D. G. Parental permissiveness as perceived by the offspring and the degree of marijuana use. *Human Relations*, 27 (March),1974, 267-285.
- 44) Jackson, D. The question of family homeostasis. *Psychiatry Quarterly*, 31, 1957, 79-90.
- 45) Jackson, D. The study of the family. *Family Process*, 4, 1965, 1-20.
- 46) Jessor, R. Adolescent Development and Behavioral Health. In J.D. Matarazzo, S.M. Weiss, J.A. Herd, N.E. Miller, & S. M. Weiss(Eds.), *Behavioral Health : A Handbook of Health Enhancement and Disease Prevention*(pp.69-90). New York : Wiley, 1984.
- 47) Jurich, A.P. & Jurich, J.A. The lost adolescent syndrome. *Family Coordinator*, 24(July), 1975, 357-361.
- 48) Kandel, D. & Lassar, G.S.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nd adolescent independence in the United States and Denma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1(May),1969, 348-358.
- 49) Kantor, D. & Lehr, W. *Inside the Family*. San Francisco : Jossey Bass, 1976.
- 50) Kathker, M. G. & Brommel, B.J. *Family Communication : Cohesion and Change* (2nd Ed.). Illinois :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86.
- 51) Kovach, J.A., & Glickman, N.W. Levels and psychosocial correlates of adolescent drug us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5, 1986, 61-70.
- 52) Kovacs, M.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Psychopharmacology Bulletin*, 21, 1985, 995-998.
- 53) Lesser, G.S. & Kandel, D.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nd adolescent independence in the United States and Denmark. *Journal of Marriage*

- and the Family, 31, 1969, 348-358.
- 54) Levi-Strauss, C. The Family. In H.L. Shapuri (Ed.), *Man and Culture and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1956.
- 55) McCord, W., McCord, J., & Zola, I.I. *Origins of Crime*.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 56) McDonald, G.W. Parental identification by the adolescent : A social power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Nov), 1977, 705-719.
- 57) Minuchin, S.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 58) Murdock, G.P. *Social Structure*. New York : Macmillan Co., 1949.
- 59) Mussen, P.H., Conger, J.J., Kagan, J., & Huston, A.C.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7th Ed.). New York : Harper & Row, 1990.
- 60) Olson, D.H.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 Assessing Family Functioning. In Walsh, Froma(Ed.), *Normal Family Processes* (PP.104-136). NY/London : The Guilford Press, 1993.
- 61) Olson, D.H., Portner, J., & Lavee, Y. *FACES III*. St. Paul :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1985.
- 62) Olson, D.H., Russell, C.S., & Sprenkle, D.H. Circumplex Model of marital family systems :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18, 1983, 3-28.
- 63) Olson, D.H., Sprenkle, D., & Russell, C.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 :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Process*, 18, 1979, 3-28.
- 64) Rollins, B.C. & Thomas, D.L. A Theory of Parental Power and Child Compliance. In R. C. Cromwell and D. H. Olson (Eds.), *Power in Families*. New York : Halsted and John Wiley, 1975.
- 65) Santrock, J.W. *Adolescence : An Introduction*. Dubuque, IA : Wm.C. Brown Pub., 1984.
- 66) Satir, V. *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California : Science and Behavior Books, 1964.
- 67) Speer, D. Family systems : Morphostasis and morphogenesis, or is homeostasis enough? *Family Process*, 9, 1970, 259-278.
- 68) Spielberger, C.D., Gorsuch, R.L., Lushene, R.E.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lifornia :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1970.
- 69) Steinberg, L.D. & Hill, J.P. Patterns of family interaction as a function of age, the onset of puberty, and formal thin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14, 1978, 683-684.
- 70) Wertheim, E. Family unit therapy and the science and typology of family systems. *Family Process*, 12, 1973, 361-376.
- 71) Westley, W.A. & Epstein, N.B. *Silent Minority : Families of Emotionally Healthy College Students*. San Francisco : Jossey-Bass, 1969.
- 72) Youniss, J. & Smollar, J. *Adolescent Relations with Mothers, Fathers, and Friend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